

- 주요 뉴스: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전쟁 중단 관련 합의에 실패
 - IMF 총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예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채권매입 종료는 예상보다 조기에 시행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험 증폭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내며 1.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2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8%,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관측 등으로 2주래 최고 수준
 독일은 ECB의 조기 채권매입 종료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29.5원, +0.5원) 강보합, 한국 CDS 하락

		3/10일	3/9일	전일대비			3/10일	3/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59.5	4,277.9	-0.43%	국채 금리 10y	미국	1.99%	1.95%	3bp
	유럽	427.12	434.45	-1.69%		독일	0.27%	0.22%	6bp
	중국	3,296.1	3,256.4	1.22%	CDS 5y	한국	29bp	32bp	-3bp
	일본	25,690	24,718	3.94%		중국	54bp	57bp	-3bp
	한국	2,680.3	휴장	2.21%	위험 지표	EMBI+	-	606	-
환율	달러지수	98.53	97.97	0.57%		VIX	30.23	32.45	-6.84%
	유로화	1.0986	1.1076	-0.81%		WTI유	106.02	108.70	-2.47%
	엔화	116.14	115.83	-0.27%	원자재	구리	463.0	456.4	1.44%
	위안화	6.3222	6.3176	-0.07%		금	1,997.0	1,991.8	0.26%
	원화	1,228.3	휴장	0.7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비 7.9% 올라 198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 전월비 기준으로도 0.8% 올라 1월(0.6%) 대비 상승. 연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6.4%를 기록하여 전월(6.0%) 대비 높은 수준
- 이번 결과는 휘발유(38%), 식품(8.6%)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또한 보다 많은 부문에서 가격 상승 징후가 발생
-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은 금년 3~4월 CPI(8.0~9.0%)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Oxford Economics의 Kathy Bostjancic은 공급망 혼란 심화 등을 이유로 금년 말 CPI 전망치를 상향 조정(3.0%→4.0%)
- 한편 Guggenheim Partners의 Brian Smedley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당분간 연준은 당초 계획보다 긴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데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0.25% 금리인상을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전쟁 중단 관련 합의에 실패

- 양국의 외무장관은 서로 이견만을 확인하고 대화를 종료.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경제가 큰 충격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여파는 점차 완화될 것이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
- 미국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대러 제재 우회를 시도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 미국 하원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법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의 포괄적 세출법안(136억달러 규모)을 가결

■ IMF 총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예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러시아에 대한 종전 압력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미국 3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노동공급 부족은 지속

- 해당 건수는 22.7만건으로 전주 대비 1.1만건 늘어나 전주(21.6) 및 예상치(21.6) 상회. Bankrate의 Mark Hamrick는 미국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채권매입 종료는 예상보다 조기에 시행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5%와 0.25%로 동결. 중기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통한 순자산매입은 3/4분기에 종료
- 이번 결정은 APP 종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빗나갔는데, 이는 ECB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 APP를 통한 월간 채권매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
- 라가르드 총재는 APP를 통한 채권매입이 종료되고, 일정 시간 이후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또한 이는 점진적인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ING의 Carsten Brzeski는 이번 결과를 통해 ECB가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균형을 잘 맞추었다고 평가. 또한 금년 말 첫 번째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첨언

■ 모건 스탠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통화의 약세 가능성을 경고

- Min Dai 애널리스트는 이번 전쟁의 영향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

■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사회불안 심화될 우려

-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적으로 식품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제반 여건이 취약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과거 ‘아랍의 봄’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독일 2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Elevated Inflation Settles In for the Long Run)

- 최근 다양한 요인들이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소비자물가의 주요 항목인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과열로 자기주거비(Owners Equivalent Rent)는 '23년에도 5%를 상회할 전망
- 코로나19 확산의 둔화로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의 회복에 시간이 필요. 또한 연준의 채권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화공급 증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

■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 - Financial Times

(Europe must immediately join Washington's energy embargo)

-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조치는 미국보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EU에 더 큰 타격.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가스 수입 관련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러시아 역시 대규모의 석유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추가로 러시아산 원유 자금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 등에 제재를 강화한다면 러시아의 대응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전망.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미진한 태도는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 정부에게 편익을 부여

■ 연준의 금리경로, 첫 번째 인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고려한 재조정이 요구 - 블룸버그

(The Fed Needs to Delay Its Rate Hikes)

■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상당한 비용 증가 발생 - Financial Times

(The rising costs of China's friendship with Russia)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 국제금융시스템의 분리를 촉진할 소지 - Financial Times

(Toppling the dollar as reserve currency risks harmful fragmentatio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